

# 1936억 투입... 장흥군 '유동인구 300만명' 달성 시동

관광발전 종합추진계획 수립  
푸드·축제·박람회·스포츠 등  
7개 항목 28개 단위사업 추진  
SNS 활용해 관광서비스 개선

장흥군은 유동인구 300만명 달성을 위한 관광발전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관광마케팅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장흥군이 이날 발표한 관광발전 종합추진계획은 크게 7개 항목으로 구분된다.

관광인프라 확충, 스포츠인프라 구축, 정남진로컬푸드 육성, 국내박람회 추진, 9개 축제, 홍보마케팅, 스포츠마케팅 등이 이번 계획의 골자다.

군은 7개 항목 28개 단위사업별로 민자를 포함 장단기 사업으로 1,936억원을 투



물축제.



해동사.

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광개발 방침에는 ▲맑은 물 푸른 숲의 청정 농수산물을 활용한 건강관광산업 육성 ▲탐진강 등 자연자원과 인종근 의사 사당 관광자원화 클러스터 구축 ▲문화·예술·문학을 활용한 고품격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스포츠산업 집중 육성 ▲전라남도과 인근 시군과 연계한 광역관광 코스 개발에 올인 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는 복안이다.

군은 국내 유일의 안중근 의사 사당인 해동사를 관광자원화해 청소년들의 체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옛 장흥교도소를 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 조성해 색다른 체험공간과 영화 및 드라마의 세트장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장흥의 보물인 탐진강엔 수변 도널길 등 테마파크를 만들어 정남진장흥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기로 했다.

4년 연속 우수축제에 등극한 정남진 장흥 물축제를 더욱 발전 시키고, 2019년 산림문화박람회와 통합학박람회를 함께 추진해 지역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대내외에 널리 알려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군은 스포츠 마케팅을 위해 체육인 교육센터 유치와 정남진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고, 철인3종경기 등 전국대회 9개를 유치해 스포츠 메카로 입지를 확고히 다지겠다는 방침이다.

관광서비스 개선을 위해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 실시간 관광 정보를 제공하며, 문화관광해설사 서비스 기능도 강화,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모바일스탬프 투어, 팸투어도 추진한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 참가 선수들을 겨냥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장흥=위지훈 기자 jh2255@metroseoul.co.kr

## 담양 한국대나무박물관, 불법 상가 골머리

불법 재임대로 식당 무허가 영업  
박물관측 조치 없는 방관에 '비난'

담양군에 위치한 전국 유일의 대나무 박물관인 '한국대나무박물관'이 관리 소홀로 인해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식당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대나무박물관 내에는 본관과 테마공원, 죽 종장, 대나무공예 체험실, 죽제품전문판매장, 갤러리, 카페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박물관 내에 있는 죽제품판매장(120㎡) 4곳 중 한곳을 불법으로 재 임대를 해줘서 식당이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대나무박물관측에서는 아무런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아 주민들의 언성이 잦다.

현행 국유재산법과 동행 시행규칙은 국유재산을 임대 받은 자가 다시 임대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대나무박물관측은 이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불법 영업을 방관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실제 김모씨는 한국대나무박물관내에 있는 죽제품전문판매장(120㎡)을 4200만원에 낙찰 받아 영업을 하다가 지난해 12월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가계문을 달았다. 그후 바로 앞에 있는 있는 주모씨 소유 매장을 2550만원에 재임대 받아 수개월 동안 영업을 하고 있지만 관리부서인 담양 한국대나무박물관측에서



담양 한국대나무 박물관

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국유재산법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시민 박모씨는 7일 "어떻게 국유재산법을 지키지 않고 공공장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개인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죽순영농조합이 한국대나무박물관 측에 낙찰을 받고 경영하는 식당(360㎡)도 장사가 안되자 이를 개인에게 재임대해 식당을 경영 하도록 했다.

이처럼 경영자가 여러 번 바뀌었지만 한국박물관측은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관만 하고 있어 특정 조합에 특혜를 주고 있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한국대나무박물관 관계자는 "지난 12월부터 계속 연락을 해 보았지만 연결이 안 돼 지금까지 모든 일들이 처리되지 않고 있어 연락이 되면 바로 행정 처리 하겠다"고 말했다.

/담양=김태수 기자 ts7080@

## 이천, 2030년 도시기본계획 심의 최종 통과

경기도 설정인구 21.4만명→30.3만명  
기존 개발지 시가화용지 21.59㎢ 확정

경기도는 이천시가 신청한 '2030년 이천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7일 밝혔다. '2030년 이천 도시기본계획'은 이천시의 미래상과 도시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법정 최상위 계획으로 공간계획뿐 아니라 모든 계획과 정책수립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도시발전 로드맵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30년 목표 계획인구는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유입되는

인구 등을 고려해 30만3천명으로 설정('19.1월 이천시 주민등록 인구가 21만4천명)했다. 또한 목표연도 토지 수요를 추정해 도시발전에 대비한 개발 가능지 15.34㎢는 시가화에정용지로, 시가화가 형성된 기존 개발지 21.59㎢는 시가화용지로 나머지 424.36㎢는 보전용지로 토지이용 계획을 확정했다.

경강선 개통, SK하이닉스 추가 투자 등 변화된 도시여건과 남부지역 균형발전 도모 등을 고려해 도시공간구조를 1도심(이천도시권) 3지역중심(마장, 모가, 장호원)에서 1도심(이천도시권) 2부도심(장호원, 부발) 3지역중심(마장, 모가, 신둔)

으로 개편했으며, 국도3호선을 주개발축으로 설정해 도시기능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도시공간구조를 구상했다.

이에 따라 1도심인 행정구역상 동 지역은 행정 주거 상업 등의 중추기능을 담당하고, 2부도심인 부발읍과 장호원읍은 도심의 산업 행정 기능을 보완, 마장, 모가, 신둔 등 3지역중심은 관광 등 일부기능을 분담하게 된다. 주요 교통계획으로는 주변개발계획과 상위계획인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평택~부발 전철 등)과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을 고려한 교통망 체계를 구축 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 전남, '마을 행복공동체'에 9억5000만원 지원

신규 148곳 포함 172곳 선정

전라남도는 침체된 마을의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을 행복공동체 172개 선정을 마치고,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동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선정된 마을행복공동체는 주민 5명 이상이 모여 공동체 활동을 시작하는 씨앗단계 148개, 이미 활동하고 있는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새싹단계 19개, 자립형 공동체를 지향하는 열매단계 5개다. 공동체 개소당 400만~2000만 원, 총 9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50개)보다 3



전남도청 전경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특히 씨앗단계 마을행복공동체는 주민들이 마을의 고민거리를 논의하고, 직접 사업계획을 세워 공모에 참여했다. 사업계획을 제출한 공동체를 팀으로 구성해

공동체 대표로부터 직접 사업 설명을 듣고, 토론, 심사하는 주민 참여 심사방식으로 공동체를 선정했다.

주요 활동 분야는 마을 환경 개선 57개, 마을 축제·문화·예술 39개, 복지·돌봄 17개, 마을 교육 50개, 공동 생활활동 9개 등이다. 참여 공동체 구성원은 4573명이다.

전라남도는 이같은 공동체 활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회계교육, 현장 방문 컨설팅과 모니터링 실시,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전남 마을공동체한마당 행사에서 우수사례를 공유해 마을행복 공동체 활동을 확산할 계획이다. /광주=봉채영 기자

## 광주광역시 건설기술용역업자 PQ 평가기준 일부 개정

광주광역시는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 수행능력(PQ) 세부평가기준을 오는 4월 1일부터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일부 개정은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 평가기준이 개정 고시됨에 따라 국토부 기준을 준용해 추진됐으며, 광주시는 자체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하기 위해 행정예고를 거쳤다. 이어 이달 말 지방건설기술심

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일정금액 이상 건설기술용역 입찰 전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참가자의 기술 능력, 관리 및 경영 상태 등을 종합 평가해 용역업자가 성공적으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은 국토교통부에서 개정한 설계분야 PQ평가기준은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의 실적 등 평가 배점을 낮추고, 실무 업무가 집중된 분야별책임기술자의 등급·경력·실적 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하는 기술자를 우대하는 동시에 젊은 기술자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광주=봉채영 기자 bcy2020@

###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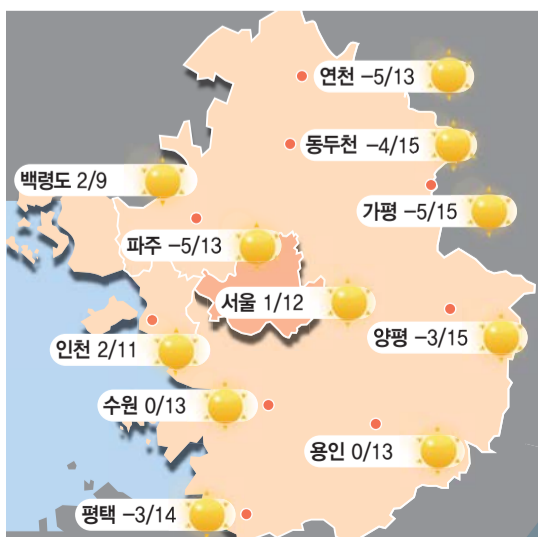
해돋이 / 06:55 | 해질 / 18:32

3월

8일 (금)  
음력 : 2월 2일

수도권 날씨

1 ~ 12°C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